



현대불교 창간 9주년
1994~2003
buddhanews.com

무한대의 부가가치를 활용하라

‘감동과 동참’의 마당 넓히기 길 험난해도 보람 크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더욱이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된 요즘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 각종 문화 공연과 상품에 일반인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 때론 거리의 벽보판을 도배하다시피 한 공연 홍보물의 범람으로 숨이 막힐 지경이다. 하지만 불교문화계의 현실은 어떠한가. 부처님오신날 전후나 가을에 공연들이 집중되어 상설로 즐기기에 역부족이다. 또 장르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뚜렷한 실정이다. 음악공연과 미술 전시는 많은 반면 연극과 무용 등에 대한 공연물들은 가을에 끝나고 있다. 그러나 무한한 부가가치를 갖는 문화활동을 통한 포교 성과는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당연과제다. ‘감동과 동참’을 키워드로 삼는 불교 문화포교의 현주소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장르별로 점검해 본다.

- 음악 신인연주자 발굴·사찰부담 줄여야
- 전시공간 포교겸해 절이용 바람직
- 무용 발레·재즈등 현대무용과 접목필요
- 재미있게 각색한 시나리오 개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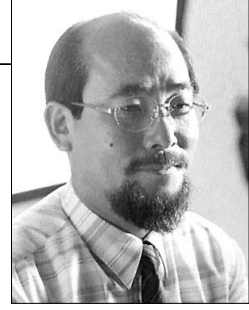
그림 · 김명민

▲음악 지난해까지만 해도 불황으로 다소 주춤했던 산사음악회가 올 가을에는 유난히 흥년이였다. 활성화와 함께 장르도 다양화됐다. 찬불가를 비롯해, 국악, 클래식, 대중가요 등 열린음악회 형식의 크로스오버 스타일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우선 출연자가 인기가수에만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수입이 없는 산사음악회의 예산이 턱없이 높아져 사찰측의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실제로 요즘 산사음악회의 단골 게스트인 J모씨의 1회 출연료가 4~5백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획일적인 출연자들로 인해 산사에 식상한 멜로디가 울려 퍼지기 보다는, 신인 연주자들을 많이 발굴해 저렴한 비용으로 알찬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양평 사사사 주지 화엄 스님은 “템플스테이처럼 산사음악회의 정보도 종단 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효율적일 것”이라고 조언한다.

▲미술 불자 직장인 김홍식(35·KTF)씨는 주말마다 인사동 화랑골목으로 가족들과 함께 미술관 나들이를 간다. 회화, 조각, 금속 공예, 설치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미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씨는 굳이 사찰을 배경으로 하는 그림이나 달마도가 아니더라도 공(空), 선(禪), 명상, 자아성찰, 열반 등 불교적인 소재의 전시회들이 예전에 비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실감하고 있다. 인사동이 아니라도 이런 현상들은 흔하게 볼 수 있다. 지난 10월 5일 경기도 광주 영은 미술관에서 막을 내린 ‘공간의 여행展’ ‘니르바나(열반)’를 주제로, 영화배우 출신의 강리나씨가 7월에 연 ‘3×3=33’ 설치미술전은 ‘공’ 사상을 작품에 담았다. 이제 불교미술은 꼭 불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비종교인들도 작품의 주제로 사용할 만큼 폭이 다양해지고 넓어졌다. 따라서 전시공간도 미술관이나 갤러리 중심에서 벗어나 사찰에서도 경내에 미술 포교를 위해 다양한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 예로 템플스테이 사찰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강화 전등사에서는 소규모의 갤러리를 경내에 만들어 ‘산사그림전’ 등을 기획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용 불교 무용 공연은 다른 공연에 비해 비인기 장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포교 무용가들도 많지 않은 편이다. 물론 승구나 작법무, 법고, 나비춤을 추는 전통 무용가들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현재 순수한 불교를 주제로 한 포교 무용을 표방하며 공연하는 이들은 손재현, 이명미씨, 김민정씨 등 손으로 꼽을 정도다. 여기에 능화·법현·일초 스님 등 영산재 이수자들이 주축을 이루는 정도다. 그럼 왜 불교무용에는 객석 점유율이 타 공연에 비해서 낮은 것일까. 이에 대해 손재현 동국대 교수는 “다른 문화 장르들이 대부분 동·서양이 결합한 퓨전 형식을 띠는 것처럼 포교 무용도 소재는 불교적이지만 형식은 일반인들에게 인기있는 발레나 재즈댄스 등 현대무용을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전문기고

이점원

동국대 미술학과교수(설치 미술가)

전통문화체험 포교에 활용하자

의식주 이용 생활체험 프로그램 개발 성보문화재와 연계한 불교점목 용이

전통문화를 되살리려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실용성과 효용성을 추구하는 현대 문화에 밀려, 면면히 이어온 전통문화가 잊혀지는 것이 아쉽기 때문이다. 이같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전통문화 체험학교’가 각광받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여느 때보다 증대되고, 체험을 통한 산 교육 특화가 권장되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불교 포교 방법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험학교는 프로그램의 질이나 양의 측면에서 수요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사찰체험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는 비교적 성공적인 체험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호응 뒤에는 ‘고 부가가치 향유 사업’으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고, 체험 프로그램 역시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고 있다.

하며 펼쳐는 자연스러운 포교야말로 생활에 유용할 것이며 또한 오래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실제로 경주에서 체험학교를 3년 정도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다보니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 많은 이들이 체험학교에 들고 날 때마다 이런 것들이 사찰이라는 장소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늘 했었다.

사찰은 자연이 항상 살아 숨쉬며 성보문화재가 즐비해 스스로 참여욕구를 느끼기 쉬운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 혼자서 100여 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을 볼 때 사찰별로 머리를 맞대면 신선한 아이디어와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지역환경, 보유문화재, 특산물, 설화 등을 고려한다면 그 범위는 무한할 것이다. 만들기, 놀아보기, 냄새맡기, 만져보기, 알아보기, 생각하기, 느껴보기, 농사짓기, 뽀내기, 따라하기 등등, 체험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여기서 한가지 예로 의·식·주를 중심으로 한 경우만 생각하더라도 많은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 가령 ‘의(衣)’에는 △전통한복(불교복식)의 이해 △바느질을 통한 심성개발 △계량한복에 새긴 전통 문양 디자인 하기 등이 있을 수 있다. 또 ‘식(食)’에는 △사찰음식 만들어 보기 △선식과 소식 체험하기 △의식에 따른 음식 예절 배우기 등을 가르칠 수 있다. 이외에도 ‘주(酒)’에는 △대중전을 중심으로 하는 가람배치 감상 △돌담쌓기 △복조문짜 만들기 △순돌 체험을 통한 난방 체험 등이 있다.

정신적인 부분과 관련된 예는 더욱 많다. 선체험에서 묵언에 이르기까지 체험 유도 방법에 따라 무궁무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생산해 낼 수 있다. 우리나라 각 사찰의 보유문화재만 해도 그 수가 엄청나다. 이들을 직접 경험

수행공간의 본래목적에 훼손한다면 우려는 실천방법의 묘안 살린다면 얼마든지 양립이 가능하다. 대중들이 운집하는 동적인 공간 창출이 가능하며, 불교와 생활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다.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이라는 사회 계몽성을 띄게 돼,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이 될 수도 있다.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불교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그것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활용하면 체험의 자료로도 유용하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다. 유·무형 보유자산을 바탕으로 불교문화 상품의 키워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다 시한번 고민해보자. 실천적 방안으로 발전하였을 때 일반인들에게 불교는 친숙하게 다가갈 것이다.

<이점원 동국대 미술학과 교수>

법정스님의

무소유

3판 60쇄 본 1만 부의 판매금 전액을 ‘범우출판장학금’으로 출연(出捐)합니다!
▶ 범우문고 1판 1,2,3쇄 본(정가 280원)을 보내 주시면 양장본(값 6,000원)과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 4×6변형 양장본 | 값 6,000원

<h3>산사에 심은 뜻은</h3> <p>이청담 지음</p> <p>참회와 참선으로 가득찬 현묘한 법문으로 너무나 인간적인 영혼의 소리!</p> <p>인생은 태어나서 육체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잠시와 나그네길이다. 육신의 길은 일회적(一回的)이다. 이러한 사상의 핵이 담긴 스님의 마음표현은 독자들에게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하며 감명어린 정신의 경지를 마련해 준다.</p> <p>● 문고판 값 2,000원</p>	<h3>불조직지 심체요절</h3> <p>佛祖直指心體要節 백운선사 박문열 옮김</p> <p>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p> <p>선도(禪道)들에게 선도(禪道)와 선관(禪觀)의 인력은 물론 선종(禪宗)을 전통(傳統)하여 법맥을 계승해 가기 위한 책! 이 책은 우리나라의 학승(學僧)들이 대교과(大敎科)를 마치고 수의과(隨利科)에서 공부하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학습서다.</p> <p>● 신국판 값 9,000원</p>	<h3>법화경 이야기</h3> <p>法華經 박해경 지음</p> <p>반야(般若)의 공(空)을 활성화 시킨 반야의 공(說法實相)</p> <p>법화경이 천하 개인의 가르침으로 평가되는 까닭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밝힌 경전이기 때문이다. 법화삼부경 삼십이품의 연결에 주력하며 각품의 요점과 꼭 알아 두어야 할 대목들을 현대적 감각에 알맞도록 해설한 국립중앙도서관 추천도서이다.</p> <p>● 신국판 값 7,000원</p>	<h3>백운화상 어록</h3> <p>白雲和尚 語錄 석찬선사 박문열 옮김</p> <p>스승 백운화상을 향한 제자 석찬선사(釋璨禪師)의 애절한 절규!</p> <p>암울한 고려 말기의 어둠을 밝히는 외로운 등불과도 같고, 더위를 식혀 주는 신선한 바람과도 같은 독보적인 선종(禪宗)종에서 후세의 선도(禪道)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송(頌), 찬(讚), 명(銘), 시(詩), 계(偈) 등을 집록한 정경서다.</p> <p>● 신국판 값 10,000원</p>	<h3>수타니파타</h3> <p>Sutta-nipata 김운학 옮김</p> <p>불경 중에서도 가장 초기에 이루어진 경전으로 시와 글귀로 이루어진 구송문학의 백미!</p> <p>‘수타’는 경(經) ‘니파타’는 집성함을 의미한다. 부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 의해서 운문형식으로 구전돼 오다가 팔리어로 정착해 경전의 모습을 갖추고 ‘수타니파타’가 태어났다. 부처님의 첫 말씀으로 육체에 가까운 생생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책이다.</p> <p>● 신국판 값 6,000원</p>
--	---	---	---	---